

동부그룹, 폴리실리콘 3만톤 투자

총 14조원 투자 그린삼척에너지토피아 조성 ... 청정에너지 연구개발도

동부가 강원도 삼척에 총 14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복합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.

동부그룹은 동부발전삼척이 4월24일 삼척시와 <그린삼척에너지토피아>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.

<그린삼척에너지토피아>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대 총 63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에너지 단지로 2022년까지 단계별로 발전사업단지, 그린에너지산업단지, 청정에너지연구개발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.

삼척시는 동부의 1단계 발전사업이 2012년 제6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치동의서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.

발전사업단지는 11조원이 투자돼 6000MW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, 연료전지, 태양광·풍력·소수력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.

그린에너지산업단지에는 반도체·태양전지용 소재인 폴리실리콘(Polysilicon) 3만톤 생산 및 연관산업기지, 에너지 기자재 산업시설 등이 조성된다.

청정에너지연구개발단지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 기술 개발,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등 첨단 친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.

그린에너지산업단지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단지에는 총 3조원이 투입된다.

<그린삼척에너지토피아> 조성에는 동부발전삼척 외에 동부메탈, 동부하이텍, 동부건설 등 계열사들이 함께 참여한다.

동부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, 3월 말에는 동부발전삼척을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.

동부발전당진은 2010년 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당진에 1000MW급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인 <동부그린발전소>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.

<동부그린발전소>는 총 사업비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24>